

주요개념 :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신생아, 산모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의 차이

강 경 아* · 김 신 정**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인간관계는 가족 중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신생아의 관계는 성장 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신정, 정금희, 1985). 이 시기는 또한 '정상적 위기' 또는 '전환의 시기'로서 어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기의 출생을 오랫동안 기쁨으로 기다려 온 반면 또한 가족과 어머니에게는 도전과 적응을 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Gruis, 1977). 그러므로 신생아의 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신생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이은숙, 1987), Bigner(1986)는 출산 후에 겪게 되는 많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산육기 동안에 신생

아 간호에 대한 적절한 관리법을 습득하면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각은 신생아 돌보기를 자신있게 행할 때 생기며 아기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은 양육태도로 연결되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Klaus & Kennell, 1981; Pridham, 1981).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유전적 영향보다는 출생 후의 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의 환경임이 강조되어 왔다. 신생아기와 영아기 동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통해 형성된 신뢰감은 그 다음 발달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며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과업이다. 어머니와 아기가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생아의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며,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돌봄의 결핍은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장애 및 성격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희숙 등, 2003; 김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강경아 : kangka@syu.ac.kr

태임, 1991).

신생아 시기에 간호사들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각을 통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산욕기동안 모든 어머니들은 영아와의 관계형성과 관계되는 요구와 더불어 영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행위에 대한 학습 요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는 어머니가 신생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떠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모아 관계 형성을 지지하도록 올바른 간호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모의 분만경험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여 초산모와 경산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양육태도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분만경험에 따른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및 양육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과 자신감,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시 소재 2개의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을 요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돌보기 자신감 및 양육태도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descriptive comparative stud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소재 S 종합병원 부속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와 서울시 노원구 소재 1개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 산모 1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은 산후조리원에 입원 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어지기 전인 입원 이틀째의 산모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들이 병원장과 산후조리원장을 방문하여 구두승인을 받은 후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 후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수간호사 및

일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재차 허락을 받았다. 담당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산모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산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본인이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측정도구 12문항(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측정 항목 6문항, 동일문항으로서 자신의 아기에 대한 지각측정도구 6문항),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측정도구 16문항, 양육태도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Broussard와 Hartner(1971)에 의해 개발된 신생아 지각목록(NPI-Neonatal Perception Inventory)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구성은 일반 신생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느낌을 사정하는 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측정형태(Average Baby Perception Form)와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느낌을 사정하는 자신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측정형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형태의 문항구성은 울음, 구토, 수유, 수면, 배설, 수면과 수유의 안정 신생아의 행동에 관한 6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점은 '없다', 5점은 '매우 많다'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점수의 합은 일반 신생아와 자신의 신생아에 대해 각각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까지의 범위이며, 이 때 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점수에서 자신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점수의 차이를 산출하여 그 차이가 양수(+)인 경우는 긍정적 지각으로, 0 이나 음수(-)인 경우는 부정적 지각으로 평가한다. 김태임(1991)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신뢰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3, .79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각각 .74, .77로 나타났다.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인 역할에 대하여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을 뜻하며(Pridham, 198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Pharis(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을 토대로 이은숙(1987)이 일부분항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아기의 울음의 의미 파악하기, 목욕시키기,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 갈아입히기, 안아주기, 아기 상태설명, 체온측정, 손발톱 깎아주기, 눈 코 귀 깨끗이 해주기, 좋은 어머니 되어주기, 배꼽돌보기, 우는 아기 달래주기, 이상증상 발견, 딸국질 멈추게 하기, 포옹 등의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5점 척도로서 '매우 자신있다'에 5점, '매우 자신없다'에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숙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으며, 백미례(199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고, 조결자, 이군자, 이옥자 등(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는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결자 등(1999)의 아기 양육에 관한 20개 항목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고 부정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역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기 양육에 관련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조결자 등(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69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2)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연구변수들간의 차이검정은 t-test를 3)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연구변수들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59명으로서 초산모가 89명, 경산모가 70명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초산모의 경우 23-38세의 범위로 평균 29.9세이었으며 경산모의 경우는 25-40세의 범위로 평균 32.2세이었다. 교육정도는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대졸이상이고졸 보다 더 많았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인 경우가 각각 51.7%와 61.4%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가 각각 52.8%와 44.3%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수준은 '중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0.7%와 61.4%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초산모와 경산모가 각각 93.3%와 78.6%로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산후조력자는 초산모의 53.9%, 경산모의 80.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출산은 초산모의 88.8%, 경산모의 82.9%가 원한 출산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분만형태에 있어서는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자연분만이 65.2%, 61.4%로 제왕절개보다 더 많았다. 아기 성별은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남아가 61.8%, 52.9%로 여아(38.2%, 47.1%)보다 더 많았으며 출생시 체중은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2.5-3.4kg이 74.2%, 75.7%로 가장 많았으나 초산모의 경우는 2.5kg 미

만의 저 체중아도 6.7%를 차지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초산모	경산모
		실수(%)	실수(%)
연령	25세 이하	4(4.5)	1(1.4)
	26- 30세	53(59.6)	20(28.6)
	31- 35세	26(29.2)	39(55.7)
	36세 이상	6(6.7)	10(14.3)
교육정도	고졸	13(14.6)	10(14.3)
	대졸 이상	76(85.4)	60(85.7)
직업	주부	46(51.7)	43(61.4)
	전문직	16(18.0)	12(17.1)
	사무직	17(19.1)	13(18.6)
	자영업	2(2.2)	
	기타	8(9.0)	2(2.9)
종교	기독교	47(52.8)	31(44.3)
	불교	7(7.9)	12(17.1)
	천주교	9(10.1)	11(15.7)
	기타		3(4.3)
경제수준	없음	26(29.2)	13(18.6)
	상	2(2.2)	1(1.4)
	중상	54(60.7)	43(61.4)
	중하	29(32.6)	26(37.1)
가족형태	핵가족	83(93.3)	55(78.6)
	대가족	6(6.7)	15(21.4)
산후 조력자	유	48(53.9)	56(80.0)
	무	41(46.1)	14(20.0)
원한 출산	예	79(88.8)	58(82.9)
	아니오	10(11.2)	12(17.1)
분만형태	자연분만	58(65.2)	43(61.4)
	제왕절개	31(34.8)	27(38.6)
아기 성별	남아	55(61.8)	37(52.9)
	여아	34(38.2)	33(47.1)
출생시 아기 체중	2.5kg 미만	6(6.7)	
	2.5- 3.4kg	66(74.2)	53(75.7)
	3.5kg 이상	17(19.1)	17(24.3)
전 체		89(100.0)	70(100.0)

2.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

번호	문항	초산모			경산모		
		보통 아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자신 아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지각의 차이	보통 아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자신 아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지각의 차이
1	우는 것	3.35(.87)	2.87(.85)	.48(.85)	3.21(.68)	2.93(.82)	.28(.73)
2	젖을 먹는 것	3.90(.91)	3.67(1.04)	.23(.91)	3.76(.98)	3.56(1.10)	.20(.71)
3	홀리고 토하는 것	3.10(.87)	2.61(.88)	.49(.83)	3.11(.67)	2.67(.83)	.44(.73)
4	자는 것	2.60(1.07)	2.43(1.02)	.17(.79)	2.76(.77)	2.59(.79)	.17(.92)
5	배변하는 것	2.81(.93)	2.62(1.05)	.19(.72)	2.89(.88)	2.83(.90)	.06(.67)
6	먹고 자는 습관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	3.81(1.04)	3.58(1.06)	.23(.62)	3.69(.73)	3.56(.88)	.13(.76)
전 체		3.26(.71)	2.96(.69)	.30(.45)	3.24(.45)	3.02(.58)	.22(.44)

본 연구에서 초산모의 경우, 보통의 아기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은 3.26점, 자신의 아기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은 2.96점으로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는 .30점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6개 문항 모두에서 지각의 차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경산모의 경우에도 보통의 아기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은 3.24점, 자신의 아기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은 3.02점으로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는 .22점으로 나타나 경산모 역시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6개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초산모의 경우,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산모는 3.30점으로 나타났다<표 3>. 즉,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자신감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초산모에 비해 경산모가 자신감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신감 있는 문항은 초산모와 경산모가 모두 「포옹하기」로, 각각 3.96점, 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안아주기」가 각각 3.94점과 4.04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기저귀 갈아주기」가 각각 3.62점, 3.84점의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자신감이 가장 낮은 문항은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이상증상 발견」으로 각각 1.96점, 2.36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초산모는 「목욕시키기」가 2.15점, 경산모는 「울음의 의미 파악하기」가 2.77점이었고 그 다음은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배꼽 돌보기」가 2.38점, 2.9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

번호	문항	초산모	경산모
		M(SD)	M(SD)
1	배꼽 돌보기	2.38(.83)	3.93(.82)
2	수유하기	2.99(.68)	3.00(.68)
3	기저귀 갈아주기	3.62(.85)	3.84(.79)
4	목욕시키기	2.15(.91)	3.11(.88)
5	포옹하기	3.96(.84)	4.06(.81)
6	눈, 코, 귀 깨끗이 해 주기	2.90(.95)	3.36(.89)
7	옷 갈아 입히기	3.38(.80)	3.80(.81)
8	울음의 의미 파악하기	2.45(.83)	2.77(.71)
9	이상증상 발견	1.96(.64)	2.36(.70)
10	체온 측정	3.03(.79)	3.36(.90)
11	안아주기	3.94(.83)	4.04(.75)
12	좋은 어머니 되어주기	3.62(.73)	3.13(.74)
13	우는 아기 달래주기	2.99(.75)	3.06(.68)
14	손 발톱 깎아주기	2.81(.85)	3.76(.79)
15	영아상태 설명하기	2.75(.83)	3.16(.61)
16	땀띠질 멈추게 하기	2.91(.84)	3.10(.78)
전 체		2.99(.48)	3.30(.45)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초산모는 3.44점, 경산모는 3.41점으로 나타나<표 4>, 이들 모두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가 각각 4.56점, 4.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초산모는 「어머니는 아기에게 분유 먹이기 보다 모유 먹이기를 좋아한다」가 4.29점으로, 경산모는 「모유는 분유보다 나쁠 지도 모른다」가 4.27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초산모는 「모유는 분유보다 나쁠 지도 모른다」가 4.21점, 경산모는 「어머니는 아기에게 분유 먹이기 보다 모유 먹이기를 좋아한다」가 4.16점의

순이었다. 반면 초산모는 「아기는 어릴수록 돌보기가 힘들다」가 2.60점, 경산모는 「아기를 돌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할 틈이 없다」가 2.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초산모는 「갓난 아기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2.73점, 경산모는 「아기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가 2.71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초산모의 경우, 「아기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와 경산모의 경우 「갓난 아기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가 각각 2.7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

<표 4>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정도

번호	문항	초산모	경산모
		M(SD)	M(SD)
1*	어머니는 아기가 웃기 시작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독립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75(1.18)	3.96(1.01)
2	어머니는 아기에게 분유 먹이기 보다 모유 먹이기를 더 좋아한다.	4.29(.69)	4.16(.85)
3*	아기는 어릴수록 돌보기가 힘들다.	2.60(1.05)	2.93(1.04)
4*	갓난 아기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2.73(1.10)	2.76(.91)
5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4.56(.75)	4.60(.75)
6*	생후 1개월 내의 아이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때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	3.00(1.01)	3.06(.98)
7	아기들은 모유 먹이를 분유 먹기보다 좋아한다.	3.22(1.56)	3.3(.128)
8*	아기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2.76(1.16)	2.7(.08)
9*	아기를 돌보는 일은 즐겁기 보다는 힘든 일이다.	3.34(1.03)	3.0(.89)
10*	아기를 돌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할 틈이 없다.	2.80(.96)	2.5(.81)
11	아기가 울 때마다 안아주거나 돌보아 주는 것이 좋다.	3.47(.87)	3.51(.94)
12*	모유를 너무 오래 계속하면 아기가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쉽다.	3.82(.82)	3.5(.103)
13*	생후 1개월 내의 아이는 무슨 일이 잘못되지 않는 한 울지 않는다.	3.55(1.04)	3.1(.120)
14*	아기가 우유를 반병정도 밖에 마시지 않을때는 화가 난다.	3.75(.90)	3.6(.108)
15*	아기들의 우유는 규정대로 정해진 시간에만 먹어야 한다.	3.96(.99)	3.7(.78)
16	부모는 아기가 울 때 마다 달래주어야 한다.	3.22(.89)	3.1(.95)
17*	임신함으로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아기 출산 전 했었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2.85(1.01)	2.86(1.07)
18*	모유는 분유보다 나쁠 지도 모른다.	4.21(1.03)	4.27(1.03)
19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34(1.10)	3.7(.92)
20*	아기는 팔다리를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54(.93)	3.43(1.04)
전 체		3.44(.35)	3.41(.31)

* : 역 환산 문항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5>.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t=1.172, p=.243$)과 양육태도($t=.527, p=.599$)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t=4.177, p=.000$)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초산모가 .30점으로 경산모의 .22점 보다 높아 초산모가 경산모에 비해 신생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t=1.172, p=.243$) 양육태도도 초산모가 3.44점으로 경산모의 3.41점보다 높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527, p=.599$). 그러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경산모가 3.30점으로 초산모의 2.99점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177, p=.000$).

<표 5>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

	초산모	경산모	F	P
	MSD)	MSD)		
지각	.30(.45)	.22(.44)	1.172	.243
자신감	2.99(.48)	3.30(.45)	4.177	.000
양육태도	3.44(.35)	3.41(.31)	.527	.599

4.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 양육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6>.

<표 6>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와의 관계

	초산모			경산모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지각						
자신감	$r=.120, p=.264$			$r=.125, p=.073$		
양육태도	$r=.199, p=.061$	$r=.261, p=.013^*$		$r=.133, p=.271$	$r=.275, p=.002^*$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 양육태도와의 관계에서, 초산모의 경우,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r=.120, p=.264$),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양육태도($r=.199, p=.061$)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양육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261, p=.013$). 또한 경산모의 경우에도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r=.215, p=.073$),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양육태도($r=.133, p=.271$)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양육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275, p=.021$). 즉,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IV. 논 의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는 어머니가 보통의 아기들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의 정도에서 자신의 아기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뺀 차이 값으로 차이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하는데,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각각 .30점과 .22점으로 신생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초산모의 경우에는 이전의 양육경험이 없어 자신의 아기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이 경산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질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에 있어서는 경산모가 초산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어머니 자신의 양육 경험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가 아기를 포용하거나 안아주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었으나 초산모, 경산모 모두가 이상 증상 발견하는 것에 대해 가장 자신감이 가장 낮은 결과를 통해서는 신생아의 이상증상 발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전의 양육 경험이 없는 초산모는 물론 이겨니와 양육 경험이 있는 경산모도 아기의 비정상적인 증상이나 반응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을 나타내므로 정상 신생아의 특성과 관련하여 신생아의 이상증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는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자신감과는 달리 초산모가 경산모에 비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항별로는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모유에 대해 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모유수유는 어머니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태도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이 .69로 대체적인 도구 기준치 .70보다 낮게 나타난 점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적용한 조결자 등(1999)의 연구의 Cronbach's α 값 .87과 비교해 볼 때 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양육태도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지각($t=1.172$, $p=.243$)과 양육태도($t=.527$, $p=.599$)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신생아 돌보기 자

신감은 경산모가 초산모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177$, $p=.000$).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첫아기와 적응할 때의 어려움을 Dyer(1983)가 초산모의 43.2%에서 부모가 된 첫 1년동안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Pridham(1982)은 산모가 신생아 간호에 대하여 적절히 준비되었다는 감정을 크게 가정수록 만족감이 더 크고, 출생 3개월동안 아기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게 된다고 하였다. 이미자 등(2003)도 산모에게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산모가 신생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신생아 돌보기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산모교육에 앞서 이러한 지각 및 자신감 정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 양육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양육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양육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61$, $p=.013$; $r=.275$, $p=.021$)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조결자 등(1999)의 연구에서는 산모들에게 실시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미경(1990)의 연구에서는 정상아를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교육효과에 차이가 없어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산모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아기는 언어의 이해도가 높으며 짜증을 내지 않고 기분좋은 음성을 내고, 부정적인 반응이 덜

하며(Sarale et al, 1978), 부모에 의해 아기가 부정적으로 된 경우 저항적이거나 공격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Sroufe, 1985). 이렇듯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아동관계의 질을 결정해주므로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분만경험에 따른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는 일부 파악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생아 간호에 대한 산모 교육시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간호중재를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분만경험에 따른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및 양육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S 종합병원 부속 산후조리원과 노원구 소재 1개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 중 본 연구에 동의한 159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외생변수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입원 이틀째의 산모를 대상으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Broussard와 Hartner(1971)에 의해 개발된 신생아 지각목록(NPI-Neonatal Perception Inventory)을 사용하였고,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자신감 정도는 Pharis(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을 토대로 이온숙(1987)이 일부분항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3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일치도를 보았다. 양육태도는 조결자 등(1999)

의 아기 양육에 관한 20개 항목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정도는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에서 보통의 아기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3.26, 3.24)보다 자신의 아기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2.96, 3.02)이 낮게 나타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정도는 초산모(2.99)에 비해 경산모(3.30)가 자신감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자신감과는 달리 초산모(3.44)가 경산모(3.41)에 비해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초산모가 .30점으로 경산모의 .22점 보다 높아 초산모가 경산모에 비해 신생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t=1.172$, $p=.243$) 양육태도도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높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527$, $p=.599$). 그러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경산모가 초산모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177$, $p=.000$).
- 초산모와 경산모 집단 모두에서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r=.120$, $p=.264$; $r=.125$, $p=.073$),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양육태도($r=.199$, $p=.061$; $r=.133$, $p=.271$)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양육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1$, $p=.013$; $r=.275$, $p=.002$).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아기에 대한 긍

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는 점이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에서 파악되었으며 초산모일수록 아기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점은 산모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초산모와 경산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만경험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신정, 정금희 (1995). 산육초기 정상신생아와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1), 5-15.
- 김태임 (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수유 상황에서의 모아 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숙, 강경아, 김순애, 김신정, 김현실, 김현옥, 문선영, 문영숙, 양은영, 이명숙, 정혜경 (2003). 아동간호학, 군자출판사.
- 백미례 (1990).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의 역할 전환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자, 서현선, 홍유희, 김소연, 유은주, 박송자 (2003).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및 교육요구도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9(1), 18-27.
- 이은숙 (1987). 초산모의 영아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결자, 이군자, 이옥자 (1999).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5(1), 84-96.
- Bigner, J. J. (1986).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Y.: McMillan Publishing Co.
- Broussard, E. R., & Hartner, M. S. (1971). Maternal Perception of the Neonate as related to Developmen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1), 16-25.
- Dyer, E. D. (1983). Courtship, Marriage, and family american style. Homewood, Illinois : The Dorsey Press.
- Gruis, M. (1977). Beyond maternity : postpartum concerns of mothers.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2, 182-188.
- Klaus, M. H., & Kennell, J. H. (1981). Mother-infant interaction, implications for adolescent mothering. Birth defects, 13, 123-129.
- Pridham, K. F. (1981). The meaning for mothers of new infant : Relationship to maternal experience.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0, 111-126.
- Sarale, E. C., Leila, B., & Arthur, H. P. (1978). Receptive language development in preterm children as related to caregiver-child interaction. Pediatrics, 61(1), 16-20.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s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ABSTRACT

Key Words : Perception of newborn, Caring-confidence, Child-rearing attitude

The Comparison of Mother's Perception of the Newborn, Caring-confidence, and Child-rearing Attitud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Kang, Kyung-Ah* · Kim, Shin-Jeo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mother's perception of the newborn, caring-confidence, and child-rearing attitud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59 married mothers of newborns in the post-partum care center using self-rating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2003 to March, 2004. Data was analyzed using SPSS/Win program by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1) The mean score of mother's perception of the newborn, the newborn caring-confidence, and child-rearing attitude were .26, 3.13, and 3.43. 2) The score of the newborn caring-confidence of multipara was greater significantly than the one of primipara. 3) The score of mother's perception of the newborn and child-rearing attitude of primipara were greater than the one of multipara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4)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perception of the newborn and child-rearing attitude and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aring-confidence and child-rearing attitude. 5) The score of mother's perception of the newbor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type of family and delivery planned. 6) The score of caring-confid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helper, the history of delivery. 7) The score of child-rearing attitude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birth weight of newborn. **Conclusion:** When the newborn care giver in the post-partum care setting is teaching the method of infant care to mother, there should be in consideration of the rearing experience of mothers. Mother's perception of the newborn, caring-confidence, and child-rearing attitude should be considered to develop the effective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who have newborn. And its educational contents must be focused on the promotion of trust between infant and mothe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myook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